

기온상승·기상이변 잦아 생태계 파괴 급속 진행

지난해 연말 국내 유력 환경단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를 환경친화도 1위로 꼽았다.

환경예산이 전체의 23%가 넘고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넓고 생활폐기물발생량도 가장 적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경북지역 역시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총체적인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온상승과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편집자주>

를 측정할 수 있는 검측장비조차 없어 주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더욱이 검출된 비스페놀 A는 발암부작용을 일으키는 발암성 유독 호르몬이라는데 경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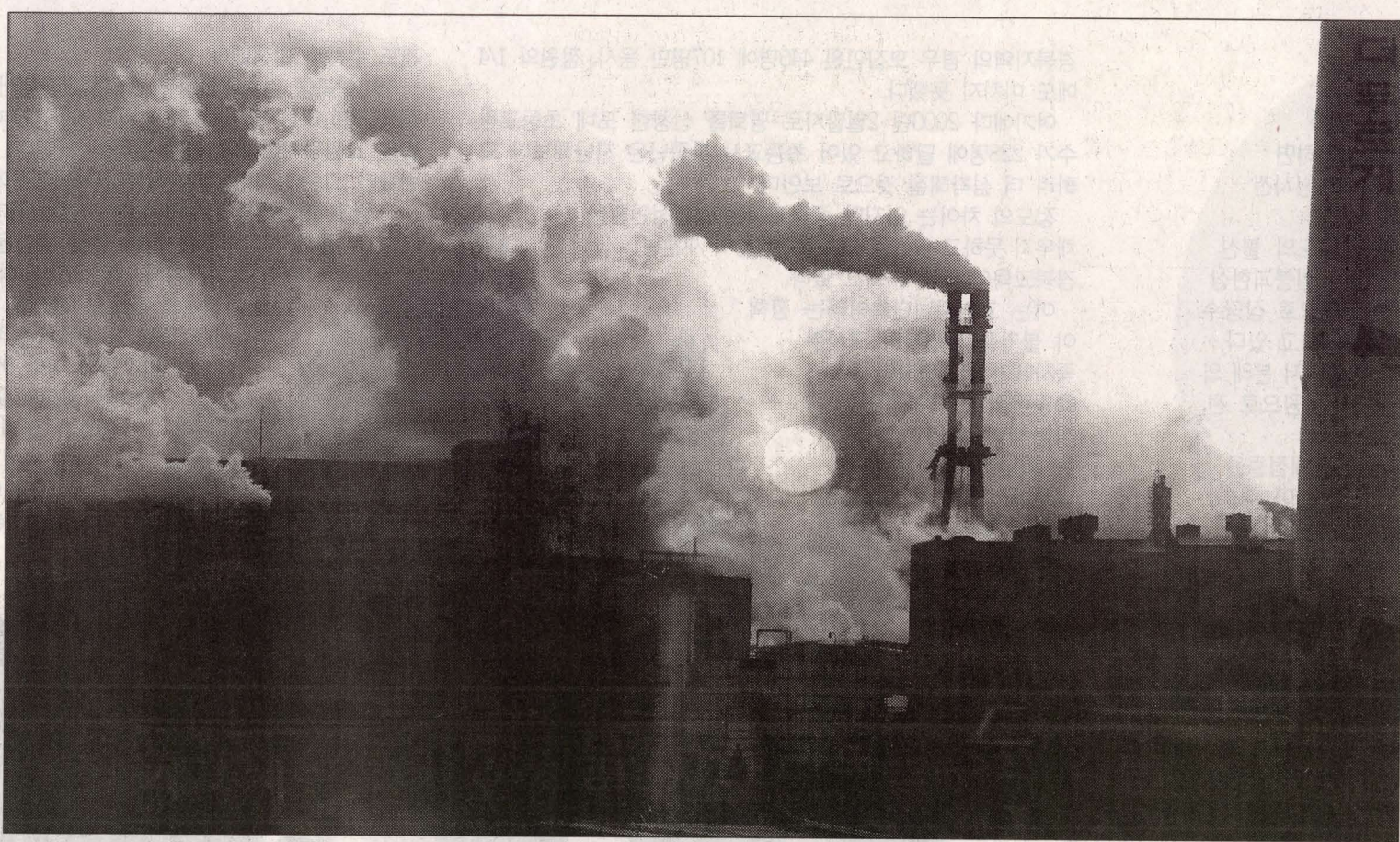
이에앞서 포항내항및 영일만연안의 퇴적물과 패류에서도 인체에 흡수될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분리현상을 일으키는 내분비교란물질이 나와 생태계 파괴와 연안 어족자원 황폐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포항 앞바다에서 채취한 고동에서는 암컷에서 수컷성기가 자라나는 '임포섹스(Imposex)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돼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환경당국의 명확한 발표가 없어 가공할만한 생명위협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된 꼴이다.

정부가 88년 쓰레기 투기 해역으로 지정한 경북 포항 동쪽 125km해역에는 무차별적인 해양투기로 생태계환경이 급격히 파손되고 있다.

경북도회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동해 앞바다에 150만 이상의 각종 폐기물이 해양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D개발 등 전국의 총 14개 폐기물 해양투기업체가 포항동방 약 125km지점 공해상의 수심 1천m내외 지점에 97년 한해동안 199만4천의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 98년 192만6천



하늘이 안보여요

새천년은 밝았지만 경북지역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체적인 환경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오염 상태가 악화되면서 산성비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



영일만에서는 선박폐유·중금속등의 유출로 어패류의 성별구분을 없애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t, 99년 9월말까지는 145만8천t의 폐기물을 내다 버렸다.

이 폐기물은 대부분 분뇨나 축산폐수, 제조시설 발생폐수, 폐산, 폐알칼리, 폐

증 피부병을 유발시킨다.

더욱이 구미와 포항등 도내 산업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이미 우려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사회에 따른 기온증가량 추정, 논문에 따르면 지난 40년동안 포항은 평균기온이 1.04도나 높아져 대구의 1.13도에 이어 전국 주요도시 가운데 2위를 나

의 7월중 해역별 평균온도에서 포항은 24.7도로 심지어인 울릉도(22.3도)와 울진(22.7도)등 동해안은 물론 부산(24.1도), 여수(24.2도)등 남해안 항구도시에 비해 0.5~2.4도 이상 기온이 높았다.

뿐만아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기로 유명한 울릉도의 경우도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설량이 줄어들고 있다. 울릉지역에는 1938년 8월 기상대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하루 적설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55년 1월21일로 150.9cm가 쌓였고, 다음으로 67년 2월12일 118.4cm, 54년 1월25일 94.1cm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많은 눈이 내렸으며, 91년에도 42.7cm까지 내리는 등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다.

그러나 92년부터 7년동안 내린 눈은 연평균 10~17cm정도로 눈의 양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기온도 지난 80년대 1년 평균기온이 섭씨 11~12도였으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80년대보다 1도가 높은 13도로 나타나는 등 기온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북해안지역 기후변동과 해양생태계 혼란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체계 변화 및 엘리뇨현상의 복합작용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경북지역의 환경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엄청난 환경재앙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환경정책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한웅기자]

영일만서 내분비 교란물질 '트리부틸주석' 검출 구미·포항등 도내 산업도시 대기오염 악화일로

수처리 오니, 하수처리 오니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것들이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이같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 매년 태풍횟수가 적어지면서 해류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이들 폐기물이 바다 등에 쌓여 적조나 백화현상, 나아가 어획량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폐기물의 또다른 화학적 처리방법 등을 개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냥 맞아서 위험할 지경이다.

지난해 경북지역에 내린 비 가운데 88.5%가 산성비로 드러났다.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전국의 평균 산성비 비율이 69.9%이며 경북은 이보다 20%포인트 가량이나 높다고 경고했다. 수소이온농도 (PH) 5.6이하인 산성비는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이 주원인으로 토양을 산성화 시키고 식물성장을 방해하며 인체에 는 탈모현상과 가려움

포항지역에서는 호흡기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탄화수소화합물(HC계열)이 연간 2천t가량 배출돼 산업시설과 난방용 배출가스량에 비해 무려 190배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배기가스 저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포항에서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SO₂) 4천329t을 비롯 먼지(TSP) 1천643t, 질소산화물(NO_x) 1만317t, 일산화탄소(CO) 1만4천354t, 탄화수소(HC) 1천987t 등 모두 3만2천630t 으로 집계됐다.

환경오염의 심각한 악화로 원인으로 기후도 급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생태계도 파괴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학계에 따르면 포항과 구미의 경우 산업화 이후 도시화에 따른 기온상승폭이 대구에 이어 전국 두번째에서 환경파괴등으로 인해 생태계와 자연기온분포의 급격한 파괴등이 우려된다. 서울대 대기과학과 강인식교수팀이 학회에 발표한 '최근 40년간 한반도 도

타냈다.

서울과 울산은 각각 지난 40년간1.01도와 0.75도 상승했고 목포와 추경평은 불과 0.08도 상승에 그쳐 '공기좋은' 경북도의 급격한 대기오염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엘리뇨에 따른 기상이변에서도 경북지역은 서해, 남해등 다른 해역의 이상기후 평균치를 훨씬 넘어선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동해를 비롯한 한국 연근해에서는 해수 온도상승과 어족자원변동등 해양생태계의 이상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이 한국 연안 표층수온변화를 지난 1916~96년까지 관측해 100년단위로 집계한 결과 겨울철 100년동안 포항 장기갑지역은 3.4도가량 수온이 높아졌고 울진지역도 1.8도 높아지는등 서해 격렬비도 1.5도 수온상승등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동안

새 천년의 시각 2000년

"포항" 천연가스 시대 개막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상반기에 포항지역에 보다 싸고 안전한 천연가스(LNG)가 공급됩니다.

포항도시가스 임직원들 더욱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ZERO 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전화 : (0562)280-5114 / FAX: (0562)280-5005

안전성

경제성

안정성

편리성

청정성

도시가스